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19년 7월)

일 시		2019. 7. 25. 목. 오후 5시	장소	대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김옥열, 김요수, 김태진, 김형순, 박미자, 신명근, 이칠우, 임철원, 조숙경, 최선희, 최영태(11명)		
	회 사	송일준 사장, 박형도 경영기획국장, 곽판주 편성제작국장, 박수인 취재부장, 안승현 기획심의부장		

▣ 회의 내용

○ 안승현 기획심의부장 : 15명 가운데 11명이 참석하셨다. 성원이 됐으므로 위원회를 시작하겠다. 위원장님께서 진행해주시겠다.

○ 최영태 위원장 : -한 달 만에 뵙게 됐다. 바쁘신데 시간 내줘서 감사하다. 요즘 세계수영대회와 관련해서 MBC에서 주관방송사로서 열심히 취재하고 좋은 방송해 줘서 감사하다.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다.

○ 송일준 사장 : -시청자위원님 반갑다. 한 달이 금세 지나가는 것 같다. 날이 더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 기쁘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시청자위원회 방송 나가는 것 보셨나? 한가름 피디가 시청자위원회를 편집하고 방송하고 있다. 지적할 게 많을 텐데 한 말씀 바란다. 세계수영대회 주관방송사인데 서울에서 와서 주로 하고 저희는 기술 스태프를 파견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저희는 대회를 성공시켜야 하는 의무를 조직위원회와 같이 공유하고 있다. 또 하다 보면 성공을 위해 비판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언론이 그걸 지적해줘야 기간 중에라도 빨리 시정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 최영태 위원장 :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다.

○ 곽판주 편성제작국장 : -작년에 제작한 <핑크피쉬> 3부작이 제46회 한국방송대상 수상하게 됐다. 7월은 세계수영대회 중심으로 방송하고 있는데 11일은 전야제 방송을 했고 12일은 개막식 라이브, 28일은 폐막 문화행사를 앞두고 있다. 정율성동요경연대회가 7월 19일에 있어서 공개홀에서 녹화를 진행했는데 27일 방송을 하고 우승을 한 광양제철남초등학교 학생들은 8월 중국 쓰촨성에서 있는 국제합창제에 참가하게 된다. 국제방송교류재단과 업무협약을 했는데 우리가 만든 지역의 콘텐츠를 아리랑 국제 채널을 통해 세계에 발신하게 된다. 8월 계획은 수영대회 마스터즈대회, 김대중 서거 10주기, 영광갯벌축제 등이 예정돼 있다.

○ 박수인 취재부장 : -수영대회를 위주로 해서 뉴스를 많이 구성하고 있다. 뉴스 전체 양의 절반 정도가 수영대회 뉴스로 나가고 있다. 광주에서 하는 세계적 행사고 성공시켜야겠다는 책임감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다. 개막식 날은 광주 목포 여수에서 공동으로 뉴스데스크 특집방송을 했고, 이후에도 데스크 수리영역, 달이영역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모아서 방송하고 있다. 주요 일정에 대해서도 공지를 하고 있다. 베트남 출신 폭력 영상 보시고 다들 공분했던 건데 왜 다문화가정에서 이런 폭력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지 조명하는 뉴스를 했다. 리포트와 전문가가 출연해서 이

야기를 나누는 게 있었다. 태풍 다나스가 광주에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갔는데 지난 토요일 재난방송을 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되기 전에 두 차례 정도 보도했고, 외부 전문가가 아침뉴스에 출연해서 법안의 문제, 취지, 잘 이해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번 달부터 오후 5시 뉴스가 작년 3월 부분개편 때 폐지가 됐는데 7월 중순부터 부활이 돼서 당일 발생한 뉴스는 데스크에서 밖에 처리를 못했는데 다행히 하루 두 번씩 처리할 수 있어서 뉴스가 부활돼서 좋다고 여긴다. 수어통역방송도 전에는 토요일 뉴스데스크 한 차례 밖에 못했는데 매일 할 수 있어 다행이다. <김낙곤의 시사본색>은 지역 이슈 심층 분석 제작하고 있다. 다음 달 주요 계획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인데 현충원에서 하는 추도식 외에 광주에서 유일하게 하는데 저희가 협약을 해서 단독 중계권을 얻어서 생방송 중계하기로 했다. <김낙곤의 시사본색>에서도 세 차례에 걸쳐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인 흔적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다. 광주형 일자리가 많은 관심사인데 8월 중에 법인이 설립될 것 같다. 그 전후해서 사회적 일자리의 의미와 제조업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과제에 대해 보도하도록 하겠다. 하반기 창사특집에 대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

○ 박형도 경영기획국장 : -회사 경영사업 전반에 대해 말씀하겠다. 회사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 서산시에 1MW급 2017년 11월부터 가동 중이고 해남 황산면 원호리에 3MW급 2019년 10월, 창사가 8일인데 그때를 기점으로 완공 예정이다. 이게 완성이 되면 연간 10억 정도의 수익을 기대한다.

○ 최영태 위원장 : -편성제작과 보도, 기타 이 부분 보고와 관련 궁금한 부분 있으면 질문을 해달라.

○ 신명근 위원 : -8월 계획으로 해서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관련 기획보도를 준비한다고 했다. 이 주제대로 한다면 좋은 쪽 기획을 갖고 있는 거 같은데 이야기 들리는 것을 보면 대표이사 선정 문제나 현대차와 계약관계가 비공개로 돼 있다. 밀실에서 진행된다고 하고 공개되지 않은 부분 많아서 염려하는데 그 부분 취재를 해주면 어떨까 싶다.

○ 최영태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견을 듣겠다.

○ 김태진 위원 : -뉴스에서 데스크 수리영역, 투데이 달이영역이라는 코너가 생겼는데 아무래도 뉴스는 이미지 자체가 딱딱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코너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기존 뉴스 프로그램보다 유연한 느낌을 받았다. 자연스럽게 궁금증 유발이 됐고 어떤 내용인지 집중을 하게 됐다. 새로운 코너를 준비하다 보니 신경을 썼을 것 같은데 저는 좋게 봤다.

-<오매 전라도>에서 세계수영대회 관련된 내용이 계속 다뤄지고 있는데 대회 뒷이야기나 수리탈 인형을 쓴 직원이나 시민서포터즈, 수구 볼보이 등 직접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을 계속 인터뷰하는 모습이 좋았다. 보통 언론에서는 유명 선수나 유명인사에 초점이 맞춰지기 마련인데 일반 시민들을 계속해서 다루는 것을 보고 결국은 대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시민을 빠뜨릴 수 없는데 중요한 역할들 해주고 계시구나 생각이 들었다.

-유튜브 채널 훑어봤는데 그중에서도 시민소통네트워크 좋은 친구들이 있다. 첫 콘텐츠가 올라온 지 10개월 남짓 됐다. 현재 구독자 수가 어제 기준으로 171명이

다. 주변에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왜 구독자 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파악하려고 제일 먼저 한 게 목록을 쭉 봤다. 제목을 보니 예를 들어 제목이 광주 근교 화순 적벽투어 가볼까요, 가깝고도 쉬운 화순적벽버스투어, 남광주야시장에서 술방, 저는 유튜브 콘텐츠를 보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느꼈는데 제목에서부터 궁금증 유발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추가로 콘텐츠 진행을 이끌어가시는 분들이 현직 방송인이 하다 보니 일반 방송보다는 조금 유연하고 가볍기는 한데 기본 틀에서 기존 방송의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아쉬웠다. 콘텐츠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콘텐츠는 실험적인 콘텐츠를 시도하면 어떨까 생각해봤다. 예를 들어 남광주시장에서 생선을 가장 싸게 사는 법 내지는 남광주야시장 청년상인이 한 달에 버는 돈은 얼마일까요 하면 좀 더 궁금증이 유발되지 않을까. 그런 실험적인 콘텐츠가 시도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 이칠우 위원 :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 좀 더 드리고 싶다. 지역방송이 갖는 공적인 역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론형성, 지역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민들의 교류를 위한 여러 가지 정보, 여가선용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의 이미지를 보면 의향 예향 미향이 대표적인 세 가지 타이틀인데 이것을 보면 정신적인 값어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 논의되는 게 지역이 갖는 경제적 이득이나 산업적인 우월성 즉 돈과 관계된 것이 많다. 그런데 의향 예향 미향이라는 게 이것에서 벗어나 지속성이 강한 가치다. 이것을 살려낼 수 있는 문화운동을 방송사가 할 수 없을까 생각을 꾸준히 해 본다.

-세계수영대회 관련해서 저는 잘하고 있다고 본다. <오매 전라도>를 통해서도 보도되는 것을 계속 봤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 한가지 시민들의 참여, 전국적인 호응이 부족했던 것이 이 대회의 가장 큰 잘못된 점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문화적인 요소에서 각색을 해서 보도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다. 그것도 자기 주도적으로 해보면 좋겠다. MBC가 시민들의 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해서 우수 사진 시상을 한다든지, 전남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단체로 모시고 갔는데 그때 외국인 인터뷰나 행사를 같이 진행해보면 좋았을 것이다. 또 하나 손님들이 주인이 되는 보도가 적었다는 생각이 든다. 외국 선수들을 직접 취재 대상으로 삼아서 프로그램에 나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광주를 알려야 하기 때문에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이 이 지역에 무엇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 그래서 예능과 같이 겸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가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이슈인투데이'에서 집중적으로 토론했는데 저로서는 적절했다고 본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조금 심층보도가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 강조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자면 광주일고 학생들이 불매운동하는 것도 동영상으로 나왔는데 애들이 볼펜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도 나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시장을 찾아가서 시민들과 대화를 한다든지 백화점이나 수퍼마켓의 일본 상품 판매량 변화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취재해서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다.

○ 조숙경 위원 :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가장 핫한 이슈인데 조금 비판적인 입장에서 광주 전남 시민들의 관심 많은지 모르겠으나 저는 주말마다 서울에 있다보니 전국적 관

심을 끌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선수나 준비된 시민봉사단이 많이 참여한다고는 하지만 좀 더 다채롭게 기획해서 뒷이야기랄지 선수들이 참여하기까지 역경의 스토리를 발굴하는 리포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매 전라도>에서 오늘의 피나라는 코너가 있다. 리포터가 주로 소개하는 내용이 누구와 누구가 매치를 해서 누가 이겼다 이걸 계속하는데 말도 빠르고 듣고 있으면 정보를 주는 것인지 좀 어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럴 바에야 음악과 함께 표를 만들어도 좋지 않았을까. 좀 더 심도 있게 기획해서 반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피나가 끝난 다음이 더 중요하다. 처음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러면서 개최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대회를 개최한 것은 광주라는 도시 이미지를 업하고 광주라는 도시가 업그레이드 하자 이런 일환으로 개최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이 행사 이후에 어떤 부분은 잘했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광주라는 도시가 어떤 단합된 힘으로 세계적인 이미지를 업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사후에 체계적으로 리포팅 하는 시리즈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런 작업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최영태 위원장 : -전부 수영대회 초점을 맞춰 말씀하시는데 저도 수영대회 관련해 이틀 동안 나름 뉴스를 분석해봤다. 7월 22일날 8시 뉴스에 하이다이빙 보도에 비중을 두서 보도를 해줬다. 하이다이빙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을 봤을 때 자연스러운 뉴스였다고 생각이 된다. 다만 자세히 보도하고 끝날 무렵에 어떤 여자분이 너무 더워서 구토할 뻔했고 1분 아니 5분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나왔다고 보도했다. 다른 방송을 보니 너무 더운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보도하는데 30분 정도 머무르다가 더 이상 못 견디다 나왔다, 다른 사람도 그런 것 같다고 했다. MBC는 1분, 5분 이렇게 했는데 체질적으로 적응을 못한 분을 인터뷰 함으로써 보편적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쉬움 있었다. 23일날 <아름다운 도전>에 대해 상세히 잘 보도했다. 성적보다는 두 달 전에 팀을 만들었는데 세계 높은 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도전한 투혼을 상세히 보도해 내용이 좋았다. 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개최국은 자동적으로 출전권이 주어지는데 두 달 전에야 팀을 구성해서 형편없는 참패를 겪게 했는가. 이것은 조직위의 무성의한 대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위의 무성의한 대책도 따끔하게 지적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23일 뉴스에서 희망과 평화의 물살이라고 해서 시리아 난민 두 사람의 출전 소식을 보도했다. 평화의 물살 속이라는 이번 대회의 취지와 잘 맞는 소재였다. 선수가 출전한 것도 재미있는 보도고 하이다이빙에 연인이 함께 출전해 어려운 대회에서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출전한 아름다운 모습, 이런 세 사연은 스토리가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 최선희 위원 : -하계U대회와 비교해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진행 중인데 방송사의 흥행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걸로 판단한다. 피나측에서도 그렇고 정가에서 워낙 장외 투쟁을 오래 하다 보니 예산 신청 등으로 해서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스포츠대회임에도 불구하고 타지에서는 거의 모를뿐더러 광주시내 시청자들이 방송에 대한 염원이 있는데도 해갈이 되지 않는 게 경제적 여건과 맞물려서 그러지 않나. 다행스럽게 저는 개막식에 갔는데 김귀빈 아나운서가 엠시를 하고 있고, 광주 출신이 사회를 보고 있어 자랑스럽기도 했다. 너무 미약하고 미미해져서 아쉽다. 앞으로 마스터즈대회가 장기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담을 찾아내거나

방송 소스를 잡아서 구체화 시켜 보면 어떨까 바람을 올린다.

-<김낙곤의 시사본색> 이슈저격에 미리 보는 광주수영대회 타이틀로 나왔는데,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부각이 될 거고 우측에 디데이 나가고 있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알아야 할 권리와 알려줘야 할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시사탐구 일본경제 한일관계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전 단계에 좀 더 점층화되어가고 있는데 무엇이 이유이고 배경인지 저희가 생각하게 하는 꼭지다.

-<핑크피쉬> 재방송되어 반가웠다. 심혈을 기울여 제작했고 앞으로 마케팅에서도 여러 가지 캐릭터를 개발하고 있어서 <핑크피쉬>도 역시 끊임없이 다른 세트 방송을 만들어서 열을 올렸으면 한다.

-<라디오칼럼> 인공지능이 관광호남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김형주 ICT협회장께서 라디오칼럼을 했는데 우리는 세계대회를 치르면서 관광의 흑자가 좀 되어가나 관심인 마당에 이분은 대담하게 네덜란드의 관광정책을 얘기했다. 자국민보다 17배나 많은 방문객들 때문에 축소화 내지 폐지 시키는 선례를 소개했다. 잘 되는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4차산업, IT산업과 접목해서 관광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관리가 되어야겠다는 아주 1분의 짧은 멘트지만 상당히 의미 있게 칼럼을 들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지금 잘 된 것과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 변화를 준비하는 좋은 꼭지가 아닌가 싶다.

○ 박미자 위원 : -제가 뉴스를 듣다 보면 시청자 입장으로 누구나 저건 분명히 다 잘못된 거라고 판단이 되는 게 많다. 뉴스 상에서도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찍는 멘트나 내용들이 많이 올라온다. 그랬을 때 궁금하다. 저렇게 잘못된 거면 바로 잡아야 하는데 과연 바로 잡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이다. 현 상황에 대해 점검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후에 어떤 결과나 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은 어떻게 조정이 되었다든지 수정이 되었다는 걸 포함해줬으면 한다.

-<오매 전라도>는 애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진행부분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다양하다. 시청자 볼 때 궁금한 부분이 많이 들어온다. 언젠가 시장님 나와서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었다. 시장은 시장실에 출장을 가서 인터뷰하는 게 많이 익숙했는데 스튜디오에 시장님 모시고 수영대회 조목조목 긴 시간 인터뷰했던 내용이 <오매 전라도>의 섭외력이 높구나 하는 부분이었다. 시장이 나와서 인터뷰하니까 수영대회 준비상황이나 내용에 대해 신뢰감 있었다. 시청자가 문자 보내서 읽어주고 영상 사진 보내주는 부분은 시청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준 것 같아 꾸준히 지속되면 좋겠다. 수영선수권대회 관련 퀴즈 이런 것도 몰랐던 내용을 인식해 도움이 됐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라디오는 출근하면서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날마다 듣는다. 목소리나 진행 부분이 익숙한 프로그램이다. 7월 4일이었다. 인터뷰 내용이 비정규직 파업 내용 인터뷰였다. 인터뷰를 한 어느 분은 제가 알기로는 학교 비정규직이나 노동 관련해 많은 조예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너무 편향되게 너무 단호하게 그분들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말씀했다.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비정규직이 아닌 것은 아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차별화 되어 있다, 교사나 정규직은 힘들게 들어왔는데 그냥 알음알음으로 들어온 너희와 어떻게 똑같냐, 그분들의 입장에서 인신 공격적인 말이다. 진행하는 분이 비정규직에 관한 입장에서 이건 이러지 않습니까 하고 대변하

는 인터뷰를 했으면 했는데 끝까지 내용을 수긍하고 아, 그랬군요 하고 마무리 지었다. 비정규직 문제가 어느 한두 사람, 한두 직종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비정규직과 관련된 인터뷰를 같이 시간을 안배해서 다른 쪽의 의견도 들어서 판단은 시청자가 해야 된다. 그런 동등한 조건을 제시해줬으면 하는데 인터뷰를 할 때 내용이 한쪽에 편향된 것은 시청자들이 잘못 오인해서 비정규직의 파업이 얼토당토않은 것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저 사람들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인터뷰였다. 비정규직을 대변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인터뷰 하나만으로는 청취자 입장으로 분노가 일어서 체크를 해놨었다. 앞으로 이런 판단에 있어서 상반된 내용의 인터뷰라면 나머지 다른 쪽의 의사 내용, 또는 인터뷰를 같이 접목해서 들어볼 수 있는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 임철원 위원 : -<오매 전라도> 3일자에 나온 건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숨은 주역 볼보이 코너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회 신기록 경기결과 등 주요 소식을 한눈에 모아서 해주니 이해하는데 좋았다. 숨은 조력자들의 구슬땀, 보이지 않는 수고에 대해서 배려를 해서 굉장히 좋았다. 한 가지 아쉬웠다면 이게 공연장에서 리포팅을 하다 보니 음악 소리에 묻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시청자에게 제대로 전달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 리포트를 할 때는 음악 소리가 적게 나와야 하는데 음악 소리가 계속 크게 나오니 그런 부분 아쉬웠다.

○ 김옥열 위원 : -<황동현의 시선집중>이 끝나면 청취율이 높은 시간에 뉴스 전에 <라디오칼럼>을 한다. 지역의 명망가들 불러다가 육성으로 의견을 듣는 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몇 가지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첫 번째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에 동시에 겹치기로 나오는 인사가 있다. 이런 것은 고려해봐야 한다. 그분의 식견이나 능력은 지역사회에서 다 아는 것이고 유명한 분이다. 그렇지만 편성도 그렇고 지역 시청자에 대한 배려측면에서도 적절치 않은 것 같으니 고려하면 좋겠다. 지역의 인재풀을 고루 등용하는 것이 지역사회에도 좋고 방송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모르는 바는 아니다. 말도 좀 하고 명성도 있는 분을 찾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특정인이 몇 년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지적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공직선거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공직자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 전파가 공공재이고 지역사회에서 언론에 출연하는 것은 또 다른 권력을 부여받은 행위인데 한 번쯤 점검해 봐야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라디오방송 특성상 최소한 오디오적 특성을 고려해서 필진을 구성하면 좋겠다. 얼굴 보면서 텔레비전은 영상 나가고 하니까 목소리 부분이 덜하지만 라디오는 온전히 목소리만 듣는다. 답답해서 들을 수 없는 주인공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몇 년 전부터 지적했다. 그분은 사실은 라디오의 특성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분의 학식이나 이런 걸 문제 삼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면 좋겠다.

○ 김형순 위원 : -수영대회 많은 얘기 하셨는데 수영대회도 가보고 환영대회도 가봤는데 아쉬움이 초반에 많이 들었다. MBC가 주관방송사인데 수영이라는 게 일반인이 많이 참여하고 익숙한 스포츠고 흥행에 성공하는 스포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개막식 중계하고 10여 일 동안 공백이 있었다. 그 사이에 시민들이 불만이 많았고 방송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고 흥행몰이에서도 경기장이 텅텅 비

다시피 함으로써 초반에 문제가 많아 조직위로도 항의가 많이 들어왔다. 그 뒤로 시정을 많이 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초반에 아쉬움이 많았다. 수영이라는 스포츠의 특성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흥미를 유발하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 보면 다이내믹하게 보이는데 실제 경기장에서는 뭐가 뭔지 모를 정도다. 초반에 홍보하는데 MBC가 신경을 더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지금 세계수영대회 진행되는 걸 보면 광주시민들만의 집안 장치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실제 경기장에 가보면 각종 자원봉사자들과 서포터즈에 의해서 관중석이 채워지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 광주를 즐기고 이해하는 부분은 너무 미비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 8월 5일부터 18일까지 마스터즈대회가 있는데 이 분들은 자기들이 자비를 내고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훨씬 경제유발효과가 크고 광주를 알리는 데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진행에서 경험했던 미숙한 부분이나 아쉬움이 정리가 돼서 마스터즈대회는 광주를 외부에 알릴 수 있고 실질적인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MBC가 조금 더 기획을 해서 홍보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 이칠우 위원 : -홈페이지에 보면 <김낙곤의 시사본색> 제목에 내용을 알 수 있는 걸 포함해놓으면 다시 보기 할 때 편할 것이다. 그냥 몇 일자라고 써놓기만 하는 것보다 본방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가끔 들어가 보는데 찾아보려면 필요하다.

○ 김요수 위원 : -라디오에서 김두식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사람이 좋다 문화가 좋다>를 즐겨 듣는다. 광주 문화를 꼼꼼하게 소개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여기 출연하는 분들이 간혹 비표준어를 쓰는데 김두식 아나운서가 즉석에서 고쳐준다. 좋은 우리말을 쓰는데 도움이 된다. 서울 MBC에서 우리말 나들이 이런 코너를 통해서 짧지만 고운말 우리말 쓰는데 도움이 된다. 이제 전라도에서는 전라도 말이 점점 사라진다. 특히 농사 관련된 말이 많이 사라진다. 혹시 전라도말박물관 이런 코너 짧게 만들면 어떨까 생각이 든다.

-보통 사람들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나오면 사람들이 연락을 즉시 해준다. 요즘은 텔레비전, 라디오 바로 보지 않는다. 검색에 있어서 광주MBC에서 제작한 콘텐츠 부분이 바로 떠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이것이 광주MBC가 가지고 있는 뉴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새로운 분야에 대한 트렌드나 연구를 하셔야 할 것이다. 좋은 분들 모셔 워크숍 한다는지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 검색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익사업이 되는 광고 트렌드랄지 새로운 트렌드를 익혀서 TF를 한다든지 추후에는 그걸 전담하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방송전문인력을 수익이라는 이름으로 밖으로 내모는 것보다도 새로운 관련 회사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한다. 광주MBC가 새로운 트렌드를 받아들여서 새롭게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 최영태 위원장 : -추가로 말씀하실 게 없으면 답변을 해달라.

○ 곽판주 편성제작국장 : -라디오칼럼니스트 중에 전달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교체를 검토하겠다. 전반적 점검을 하겠다. 총선 출마 예상되는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어서 적정한 시점에 교체하도록 방침을 세우고 있다. 보도국과 중복출연하는 부분은 보도국과 서로 내용을 잘 조절해서 과다 출연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 박미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 담당PD는 메시지를 실어주려 했던 것 같은데 향후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대쪽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듣도록 하겠다. 좋은친구들은 지적에 충분한 공감을 하고 김귀빈 아나운서가 하고 있는데 유튜브 특성에 맞게 제작하도록 유도하겠다. 임철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시청자 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적이 됐던 내용이고 나름대로 점검하고 있다. 좋은 제안과 아이디어는 향후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 박수인 취재부장 : -수리영역 달이영역은 보통 저희가 코너물을 만들 때 최소 보름 정도 전부터 기획한다. 타이틀을 뭘로 할까 고민하는데 우종훈 기자가 아이디어를 냈다. 이서하 작가와 이미지 리포터가 날마다 고생하고 있다.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수영대회 흥행에 관한 문제, 이칠우 위원님 김형순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너무 안일하게 입장권 판매전략을 세운 것 같다. 단체나 기관에 몽땅 팔아버렸다. 90% 팔리긴 했는데 안 와버린 것이다. 비어있는 좌석은 이미 팔린 좌석이다. 또 피나나 조직위에서 종목별 일정을 구성을 잘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영이나 하이다이빙을 먼저 했어야 한다. 유럽은 모르겠지만 아시아에서는 아티스틱 잘 모른다. 그런 것도 안타깝다. 대회가 막판인데 조숙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끝난 뒤에 결산하고 반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것은 조금씩 취재하고 있다. 끝나면 일주일 정도 기간을 잡아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칠우 위원 지적하신 손님이 주인이고 문화적 요소 대회 보도 기획하고 취재하는데 데일리에 쌓이다 보니 밀려 있다. 그대로 부족함이 있으면 남아 있는 기간 동안 해보겠다. 일본 관련해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전국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 대동소이하다. 장기화될 것 같은데 광주는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자동차나 가전에 영향 있을 것으로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런 부분 타이밍 놓치지 않고 보도할 예정이다. 김영태 위원장님 지적하신 수구 대표팀이 늦게 꾸려졌다는 부분은 처음에는 북한 참가를 너무 확신을 갖고 기대하고 있었다. 공동팀을 꾸릴 수 있는 유일한 단체종목이 수구인데 기다렸는데 안 와버린 것이다. 부랴부랴 그때 만든 것이다. 박미자 위원 지적하신 뉴스 애프터서비스는 저희가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잘못했다고 지적한 사항들은 향후 어떻게 개선이 되고 안 된 것은 안 된대로 지속적으로 팔로우 하고 보도하도록 하겠다. 지역의 출연진의 인력풀을 폭넓게 형성하자는 지적은 저희도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가을 개편 시점을 잡아서 새로운 인물로 채우려고 준비하고 있다.

○ 송일준 사장 : -박미자 위원님 지적하신 <황동현의 시선집중>은 그런 정도로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반영해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절박하게 외치고 있는지 더 많이 충분하게 소개를 했어야 한다.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사회 저변에 있는 고생하시는 약자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황동현의 시선집중>도 전체적인 방향은 그런 건데 이런 식의 방송이 나갔고 거기에 대해 크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라는 게 아니다. 좀 더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웹콘텐츠와 관련된 지적과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 있다. 좋은 친구들은 스마트미디어사업단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코너만 떼서 김귀빈 아나운서가 편성제작국에서 만들고 있다. 웹콘텐츠 톡톡 튀는 10대가 좋아하는 걸 해야 하는데 역부족인 부분이 있다. 어떻게 구독자를 끌어들일 것인가는 편성제작국장이 같이 의논을 해서 노력하겠다. 광주수영선수대회 흥행몰이는 초반에 마치 주관방송사인 MBC가 열심히 하

지 않은 것처럼 광주시나 조직위에서 저희한테 얘기했는데 그것은 매우 방향이 잘 못된 것이다. 이런 국제적인 대회를 치르려면 국내외에 엄청난 돈을 쓰고 오랜 기간 공을 들여야 한다. 그런데 북한 참가를 지나치게 믿고 있었던 부분, 돈이 없다고 홍보를 미리 열심히 하지 않은 부분, 주관방송사는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독점 방영권을 사서 하기 때문에 대회가 흥행이 되고 시청률이 잘 나와야 투자한 보람이 있는 것이다. 수영대회 끝나고 과연 이 대회를 통해 광주가 글로벌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가 아니면 뭐가 부족해서 못 되었는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짚어보는 일들을 하도록 하겠다. 김옥열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청자위원회에서 지적하신 것과 더불어서 밖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국장들이 아이고 뜨거워라 할 것이니 동시에 해달라.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 당신 출마할 것 아니오, 법에 정해진 기간이라는 게 있다. 언제 전까지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겠으나 시정할 수 있는 건 하도록 하겠다. 오늘도 특히 저는 박미자 위원님 지적을 매우 뼈아프게 듣고 있었다. 잘 챙기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 최영태 위원장 : -오늘 시청자위원회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다. 박수로 끝내도록 하겠다.

끝.